

시론



주홍
치유예술가
샌드애니메이션 아티스트

대구에서 온 편지

작업을 한다. 거의 매일 영암의 오래된 농가주택을 작업실로 고치는 작업이다. 세상은 흥흥하지만 봄은 오고 있어서 거리마다 꽃들이 만발하고 있다. 영암으로 가는 길목에 다양한 종류의 묘목을 팔고 있어서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를 한그루씩 심기로 했다. 산수유와 영두나무, 그리고 사과나무 묘목을 구해서 정원에 심었다. 학교공부를 싫어하는 아들은 날마다 신났다.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광주천을 관통하고 극락강변까지 다녀온다. 유채꽃과 벚꽃이 만발했다며 스마트폰 사진을 보여준다. 그리고 철봉에 매달려서 놀거나 집안일을 돕는다. 물론 게임도 한다. 학교에 가고 싶다는 말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고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긴 방학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가족의 일상이 새롭게 찾아왔다.

이렇게 긴 방학이 우리 인생에 또 다시 찾아올까? 일이 없어서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다. 가족이었지만 서로 바빠서 일터로, 학교로, 학원으로 흩어져 있었던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일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전염병의 재앙속에서 선물처럼 찾아온 찬란한 봄날의 '일상'이라는 기적!

삶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

다. 화상으로 회의를 하고 강의를 하며 재택근무로 가능한 업무는 출근을 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할 수 없게 되자, 자연스럽게 홈스쿨이 이루어지고 온라인수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라는 공간을 떠나서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정리하며 사용 가능하게 편집해서 세상과 소통하며 적응하고 있다. 앞으로 기술은 더 빠르게 진보할 것이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는 위기는 정치인들에게 기득권 싸움을 중단하고 법을 신중하게 바꾸고 신기술이 현장에 적용 가능하도록 제도화 할 것이다. 그렇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 사회는 매우 빠르게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지.

나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정신에서 1980년 5월 광주정신을 봤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시민정신, 사제기도 없고 오히려 나누고 배려하며 극복하고 있다. 꿈꾸던 대동세상이 위기상황에서 실현되는 대한민국이다.

대구에 지역감염으로 번지자, 전국에서 의료진들이 대구로 달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한 복판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지 않은가! 대구에 환자를 다 수용할 수 없게 되자, 광주시에서는 대구의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상을 제공했다. 광주에서 치

료받은 환자 전원이 완치되어 대구로 돌아갔다는 소식은 또 얼마나 다행인가. 대구로 돌아간 가족이 빛고를 전남대 병원에서 만난 의료인들의 정성과 따뜻한 보살핌을 잊을 수 없다며 감사의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다는 소식은 5-18 왜곡의 세월 때문인지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또한 광주·전남의 마을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 군 단위로 마을 분들이 모여 직접 답은 각종 김치와 남도 반찬들과 특산품을 모아서 대구지역에 전달했다는 이야기, 신안군에서는 임자도의 튼립과 프리지어 등 봄꽃들을 트럭에 실어 대구의 환자들에게 희망의 편지와 함께 전달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오월어머니들은 도시락을 직접 싸서 의료진들에게 나눠드리며 응원했다는 소식 등, 아름다운 나눔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다. 전국적으로 나눔의 실천은 전염병보다 더 빨리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대재앙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욱 인간답게 결속시키고 있다.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힘으로 극복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그동안 멈출 수 없었던 경쟁사회 시스템도 이번 멈춤과 정지된 시간의 경험을 토대로 좀 더 인간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사과나무 한그루를 심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社說

해외 입국자 시설격리 조치 무조건 수용하라

광주와 전남에서 어제 해외 입국자 확진자가 또 다시 나왔다. 거의 매일 해외 입국자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와 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 확진자가 많지 않은 편이었지만 최근 해외 입국자 입국으로 점점 늘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 확진자는 각각 25명, 15명이다.

새 확진자는 광산구 거주 18세 A양으로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양은 지난달 29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사흘 후 의심증상이 나타나자 선별진료소를 찾았다. 목포에서도 지난달 31일 미국에서 입국한 45세 B씨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씨는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뒤 자가격리에 들어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번 광주와 목포 확진자들은 해외 입국자 시설격리 방침 이후 도착했지만 모두 강제 격리되지 않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증상과 관계없이 사흘간 의무적으로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조치하고 진단검사를 받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해외 입국자들이 시설격리 방침에 반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공무원이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들은 자가격리를 주장하며 거부했다. 결국 담당 공무원이 자가격리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면서 일단락되긴 했지만 행정명령의 효력이 현장에서 잘 통하지 않은 사례다. 해외 입국자들 가운데는 부모에게 귀국 사실을 문자메시지로만 보내거나 공동 격리 시설을 이용하며 수칙을 잘 지키는 모범 사례도 전해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명령을 엄격하게 시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해외 입국자들의 시민 정신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공동·자가 격리조치의 무조건적인 수용과 거리두기 등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모두를 위해 얼마간 불편을 감수하는 공동체 의식이 시급하다.

‘코로나19’에 정신없지만 지역현안 잘 챙겨야

이용섭 광주시장이 어제 제2회 임시회에서 핵심 현안을 열거하며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고 한다. 광주시 행정력이 코로나19에 집중되다 보니 지역 주요 현안이 소홀해질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빅뉴스에 다른 소식은 ‘난쟁이’가 되는 때이지만 코로나19가 물러가면 현안은 목전에 다시 다가올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점검은 시의적절하다.

현재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광주글로벌비즈니스 ‘광주형 일자리’ 유지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어제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 이뤄진 투자협약 파기를 선언했다. 앞서 이날 시는 노동계의 여러 요구사항을 수용할 뜻을 밝히며 파기 철회를 촉구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노사상생 모델이 이렇게 종료될지 지대한 관심이 쏠린다.

또 15년째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시는 3차례 공모가 무산된 원인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며 공모 변경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방향이 나오지 않았다. 여기에

오는 7월 공원일몰제 시행 전에 행정절차를 끝내야 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걸려 있다. 특히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시는 전남도와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어떤 진전된 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전남도도 역시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함을 쏟고 있다. 그러나 ‘1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호남 구축’을 비롯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등 의과대 유치,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의 여수 중심 남해안·남동권 유치 등 핵심 현안이 따라 놓여있다. 또 불우이코노미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방역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에 대한 대응만으로도 합거운 시기다. 공직자들의 격무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일정이 빠듯한 지역 현안들을 챙기는 데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란다. 지역민들도 코로나19 퇴치에 적극 협력해 속히 정상적인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때다.

문화난장



박희순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팀장 대리

전통문화관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한 융·복합 프로그램인 ‘무등풍류던’이다. 매달 절기 주제에 부합한 이야기로 민속놀이, 문화재, 공연 등을 펼치면서 문화의미를 전달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정월엔 새해인사인 ‘과세 편안하십니까’로 무대를 열었다. 그리고 2월에는 대보름에 맞춰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됐고 현재까지 전통문화관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전염병 건수는 1천여 건이 훨씬 넘는다. 순조 때 콜레라, 정조 때 장티프스가 전국으로 번져 참혹한 아픔을 겪었던 기록이 있다. 민초들은 음력 정월 대보름쯤 읍내나골길 풍속으로 역병을 예방했다. 굵은 가시가 있는 엽나무를 문 밖의 상인방(上引坊·장이나 문의 위쪽에 기둥과 기둥사이를 가로지르는 나무)이나 대문위에 가로로 걸어 뒀다. 역인들이 날카롭고 굵은 가시가 많이 달린

가시나무를 두려워할 것이라 여긴 방법이었다.

전통문화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차후 내방객들과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이달엔 전통문화관 건축구조물 보수보강작업, 터러운 외관을 깔끔하게 단장할 업적당의 도장 공사, 주차장 임시부 주차면과 경차 표지판 설치 등으로 내방객 누구나 깔끔한 외관과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온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5월부터 조심스럽게 한걸음씩 진행된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무등산의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야외 공연장에서 너털마당에서 전통예술공연을 펼친다. 공연자는 지하 1층 너털마당에서 그리고 관객들은 지상 1층에서 무등산의 자연과 고풍적인 전통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평일에는 광주시 무형문화재와 함

께하는 전통문화예술강자인 판소리, 가야금병창, 판소리고법과 전통음식(약이 되는 계절김치와 보양탕 & 별미전골), 전통공예(평화·민화·가야금배우기)와 전통다례 등 총 13강좌가 안전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시민들과 만난다. 전통문화예술체험은 면역력 강화에 좋은 전통음식 만들기, 명상과 차마시는 법을 제공할 전통다례 등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치유할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무등풍류던’은 5월에 전통문화예술로 함께 치유하며 달래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일단은 봄이 왔지만 봄을 느낄 수 없는 시기를 씩씩하게 이겨내는게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계절의 여왕 5월에는 전통문화예술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심을 다해 준비하겠다. 코로나 19로 지친 시민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기고



최정식
광주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장

‘스튜어드십 코드’와 ‘코로나19’

그런데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공포감과 무력감에 신음하고 있는 지금 목격과 부하는 다르지만 의사, 간호사와 같은 의료진,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소방, 경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쩌면 더 어울리는 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단순한 비교로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동적인 자세로 그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임무 그 이상의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데에 그치는 수동적인 위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서양에서 큰 저택이나 집안일을 맡아 보는 집사(steward)처럼 기관투자자들이 위탁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스스로가 관리자가 되어 행동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다행히도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 의심 시 선별진료기관 방문을 통한 자발적인 검사 실시, 자가격리 시 원칙준수 등 조금의 불편함도 어려움이 없었지만 어려울 때 함께 극복하고자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세계의 모범사례로 언급될 만큼 우수한 우리의 방역체계를 바탕으로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에 나오는 일부 무책임한 행동들을 보고 있으면 다시 확산세가 증가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지난 주말 늦은 저녁 우리지역의 한 클럽 앞에 20~30대 젊은이들이 입장을 기다리며 길게 줄을 서서 뉴스를 보면 WHO 사무총장의 말이 괜한 걱정이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확진자 통계를 보면 3월22일 0시 기준으로 연령별 확진자 수에서 20대가 2천396명으로 전체 환자 8천897명의 26.9%에 달한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야

별게 여결만한 수준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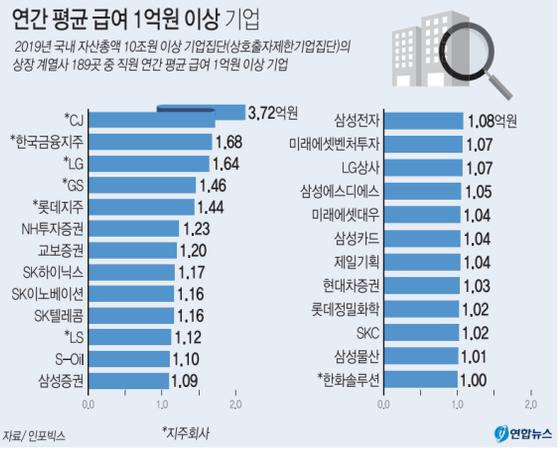
또한 지난달 21일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지역민의 우려를 자아냈다.

코로나19를 온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적 시스템만큼은 역부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적인 검진과 자발적 격리, 더불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온정, 지원 참여 등 우리 시민사회만의 감정을 살려야 이겨낼 수 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지만 봄 같지가 않은 요즘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호소에 우리 스스로가 안전관리자가 되어 참여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렇게 ‘안전 스튜어드십 코드’를 우리 마음 속에 도입해 실천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원동력으로 우리의 봄은 곧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픽 뉴스

대기업 계열사 ‘연봉왕’은 NH투자증권... 평균 1.2억원



국내 대기업 계열사 가운데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웃돈 기업이 25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주사를 제외하고 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NH투자증권이었다.

2일 대기업 집단 전문 데이터서비스 인포빅스가 각사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상장 계열사 198곳 가운데 직원 연평균 급여가 1억원 이상인 기업은 25곳이었다. 이 가운데 평균 급여가 가장 높았던 곳은 CJ그룹의 지주회사인 CJ로, 1인 평균 급여는 3억7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지주회사인 한국금융지주(1억6천800만원)와 LG그룹 지주회사인 LG(1억6천400만원), GS그룹 지주회사인 GS(1억4천6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지주회사는 직원 수가 적고 임원 비중이 커서 상대적으로 평균 급여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지주사를 제외하고 지난해 대기업 계열사 중 직원 연봉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NH투자증권으로, 평균 급여가 1억2천300만원에 달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논설실장 鄭鎮坦 편집국장 吳星洙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정치부 650-2030 체육부 650-2072 경제부 650-2050 사회부 650-2040 문화부 650-2067
지 역 특 집 부 650-2060 채 육 부 650-2080 사 회 부 650-2080 서 설 실 650-2006
광 고 문 의 650-2099 광 고 부 650-2072 경 영 지 원 국 650-2010 기 획 사 업 국 650-2079
FAX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